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부활절 제6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80. 생전에 우리가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님의 현존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폭력과 혼돈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쳤습니다. 거칠게 변한 세상 인심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찢겨지고 부서진 상처 속에서도 새살을 돋아나게 하시는 주님이 살아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가끔 눈을 감고 세상을 봅니다. 단혀진 마음으로 이 옷을 바라보고, 버릇처럼 불평을 쏟아내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에 하늘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존 웨슬리 목사를 불러 세상을 푸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늘의 불꽃으로 점화된 우리를 들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3:5	인도자
♠ 교 독 문 5. 시편 13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오선영 선생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479. 내가 깊은 곳에서	다함께
성경봉독 I. 엡4:11-16	인도자
 II. 롬8:14-17	권미정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어떤 사람이 되려는가	김기석 목사
 II. 그대 진정 사람이라면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259. 빛의 사자들이여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너그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 덧없는 열정 속에서 삶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이 급해도 서두르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공을 들이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변혁의 누룩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5월 동호회	에베소서 강해(37)/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기도 : 정옥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전나래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박규석 집사

5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정길	오진훈	최숙화	박효선	문인옥
	헌금위원	윤석철	이호원	김훈동	구명자	이순정	강순배

전 교인 연석회의를 앞두고

다음 주에 처음으로 전 교인 연석회의를 개최하려 한다. 교인들은 내게 사람들로 하여금 관대하게 나누며 살도록 격려하는 설교를 기대하고 있다. 그건 뭐 상관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쁨과 관련되는 사안이 아닌 한, 교회나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든 체면치레 이상으로는 헌신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찰떡궁합으로 일치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순간의 필요에 적합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잘 가늠할 수가 없다. 그 동안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왔고, 연석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년도 생활비가 늘어날 것임을 알기에 더욱 그러하다. 생계를 마련하는 일, 정직함과 자존심을 유지하는 일과 설교를 결합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한 바 있다. 그가 원한 것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 그러나 너무 피까다롭게 굴지는 말일이다. 정신의 줄을 조금 헐겁게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은 법이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당신을 얻기 위하여 당신의 것을 원한다.” (1917)

전쟁 훈련소 참관을 마치고

이 전쟁과 관련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혼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만일 윌슨 대통령의 의도가 실현된다면 그 전쟁의 대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나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전쟁을 초래한 외교정책과 대비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전쟁의 목적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펀스톤(Funston) 외곽에서 나는 총검술 훈련을 받는 이들을 보았다. 그 광경은 마치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뻔뻔스러운 위선자이거나, 간접적으로나마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나는 반전주의자들의 행렬에 동참할 수 없다. 내가 만일 독일 태생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소 비겁하게 보일진 몰라도

나는 새로운 나라는 사회적 통합에 민감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지긋하신 선량한 독일인들 가운데는 이 나라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숨기느라 애쓰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시국에 자신을 국가의 대의와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애국심이라는 확고한 토대 위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국가의 대의로부터 조금이라도 거리를 둔다면, 나는 카이저를 낭만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의 진영에 가담하도록 요구받을 것이 분명하다. 카이저는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만일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한다면 나는 카이저의 편에 서기보다는 윌슨의 편에 서게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 캠프들을 방문할 때마다 군목들에게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린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나와 같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있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군신 마르스(Mars)의 사제들이다. 나는 그들에 대해 기독교의 목사들에게 보내야 할 어떤 형태의 존경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 앞에 설 때마다 아주 끔찍한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군복의 위력일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전쟁의 신에 대한 경배를 뒤섞어놓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나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중적 헌신의 적절한 상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와 다르다. 어깨에 매단 조그마한 십자가는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상징이었다. 반면 군복은 전쟁의 신에 대한 그들의 헌신의 상징이었다. 나와 다른 이들에게 인상적인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군복이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자각하는 순간에도 나는 거기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다.

대부분의 군목들의 태도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늘 공식적인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괜히 어깨에 힘을 준다는 사실이다. 교역자는 권위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을 획득한 때라도 그것을 즐기는 일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그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려는 지나칠 정도의 남성성은 어쩌면 군대에 적응된 그들의 수컷다운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이 남겨 놓았을지도 모르는 흔적들을 지우려는 시도인지도 모르겠다. H가 옳았다. 그는 군목이 아닌 일반 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믿었지만 그 필요성을 기독교적인 윤리와 화해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전쟁 중에 그 어려움을 있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보다 훨씬 정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1918) || (라인홀드 니버)

■ 마/음/으/조/워/는/글

틈에 관하여

책장의 책을 빼내 읽고
제자리에 다시 꽂으려고 하니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다

뽁뽁한 책 사이,
있던 자리가 없어져버렸다
한쪽 모서리를 걸치고
열심히 디밀어도 제자리를 못 찾는다
한 권의 틈도 주지 않는다
옆의 책을 조금 빼내
함께 밀어보니
가까스로 들어간다

내가 네 안에 반듯이 앉도록
조금만 그렇게 迷宮을 들썩여다오
없던 틈으로 당겨져
내가 들어간다
(고영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한상익 정영선 구명자 김준호 곽해자 임창선
 조관행 홍선희 안홍숙 홍순구 정완수 김재광 이은옥 이정규 이인섭
 박정숙 김윤수 박옥경 박창운 허정윤 권채영 조병무 송양진

월정헌금:

이지훈 문복순 문금석 박석희 조항미 박준희 이기분 김미순 임종길
 김 극 고속이 이갑재 전영자 조항신 임종우 김윤정 류건형 문홍일

감사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박창운 허정윤 류준모 박운양 박효선 김용길
 최영혜 하재두 안길상 이형숙 황경순 안홍숙 최종원 최재수 왕성한
 강순배 김중수 임승동 백혜숙 무명2

생일감사헌금: 이정규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차 혜 심	유 영 남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영 한	김 윤 수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서 원 금	이 재 분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김 진 경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박 옥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관 권 희	박 홍 재
시 은	박 효 선	허 정 윤	홍 복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교 회	이 갑 재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안 길 상	권 명 자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오 현 정	구 명 자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김 시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박 혜 경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증 자	윤 전 화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웨슬리회심주일** : 웨슬리의 회심 사건(1738년 5월 24일)을 통해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성령의 은총 안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교사기도회** : 오늘 오후 12시 50분부터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4. **동호회** : 오늘 오후에는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사권의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5. **지방집회** : 중구용산지방 웨슬리 회심집회가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24일)까지 이태원 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장광영 감독입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 저녁 안내를 맡았습니다.
6. **심방** : 가정별 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23) - 예루살렘속1, 수(24) - 예루살렘속2
7. **신앙실천** : 1930년에 남북 감리교회가 합동할 때 웰치 감독은 감리교회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한국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감리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가버나움 속

* 헌화 : 김기석 목사 김희우 사모 (결혼 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